

최악의 재앙시대에서 환상과 꿈을 선포한 70인 제자 요엘 -복음으로 여는 요엘- 요엘 1:3-4, 사도행전 2:14-21

정윤돈 목사님

* **요1:3-4**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 **행2:14-21**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존재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평결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신 것 감사한다. 성도들이 이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고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과 인생을 걸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화요일에 있었던 RU명예박사 수여식에 다녀왔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의 많은 훈련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훈련의 마지막 훈련이 RU박사라고 생각한다. 목회자들만 RU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중직자와 램네프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동안 비대면이 훈련되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비대면으로 RU로 공부하고 있다. RU를 미국에 세운 이유는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전도와 선교신학의 모든 자료를 모으자는 취지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계복음화 망대의 중심이 미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자료를 지금도 모으고 있다. 제가 대표로 RU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시작이다. 이제 237 5천 종족을 두고 RU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오늘 요엘서에도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램네프들과 같이 서평을 하고 왔다. 램네프들과 함께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고, 성경의 인물들은 문제 속으로 뛰어 들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이길 수 없다. 그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를 이기는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 도전하는 사람이다. 요셉이 문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누명을 벗을 수 있지만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갔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 곳이 정 치인들이 있는 감옥이었다.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총리를 준비할 수 있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니엘서 6장 10절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 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 으면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해라. 어떤 분은 특별히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 감정, 경제, 건강, 자녀, 사업, 자리, 자존심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더 어려운 길과 더 힘든 길을 찾아라. 거기에 더 큰 축복이 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임한 최악의 경제적인 재앙 때문이었다. 요엘서 1장 4 절에 보면 “팔중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재앙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요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씀이 성취된 현상이 수천 년이 지난 후 마가다락방이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강림과 심판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설명하고 있다. 성령충만함을 받으니까 요엘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다. 로마의 핍박과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임을 알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 성령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성령충만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보인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충만을 받았을 때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축복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요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믿지 않으면 역사하시지도 성취하시지도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불신앙한다. 불만, 불평, 불신앙, 인본주의 가운데 있다. 이게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나의 영적상태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힘든 나의 영적상태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범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과 복음을 알려 주고 있다. 요엘은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1.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의 경제적인 재앙을 받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에는 메뚜기과의 곤충의 이름이 9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4가지를 말한 것이다. 팔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는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올 때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 문제들은 하나님이 허락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문제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것을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지만 이것을 모르면 재앙이 된다.

(2) 강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강하고 수가 많다고 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요엘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다. 간섭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1만 명 파송했을 때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고, 3만 명 파송했을 때 3만 달러였다. 우리는 이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개인과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영혼이 잘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이다. 선교사와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왔을 때는 선교사를 두고 현장에 램넌트들이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3) 또한 모든 과목과 농작물이 마르고 시들어서 버린 상황이었다. 요엘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다. “농부들이 너희는 부끄러워할 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4)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극심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요엘서 1장 13절을 함께 보겠다. “제사장들이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너희는 와서 굶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다” 소제와 전제는 예배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제사로 드렸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서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모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니스된다. 요엘서에서는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번에 금요찬양예배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응답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2. 이렇게 모든 면에서 최악의 위기와 재앙이 닥친 상황이었지만 70인 제자 요엘은 희망의 메시지와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1)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후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없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꿈속에서 살아간다. 꿈과 비전이 없는 게 문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령충만으로 찾아내야 한다. 늙은이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했다. 환상과 이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 남종과 여종, 전도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다. 현장에 가면 복음 가지고 있을 때 만나는 만남 가운데 제자들이 있다. 아무리 전도자여도 날마다 성령충만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대상자를 만날 정도로 성령충만해야 한다.

(2)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요엘서 2장 32절의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강단을 매주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단어가 붙잡힐 때까지 들어라.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때까지 집중해야겠다.

(3) 이 재앙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의 방법은 남은 자 램넌트이다. 요엘서 2장 3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남은 자 램넌트들이 재앙과 고난의 시대에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파수대, 보좌의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후대 램넌트들이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이 될 수 있도록 램넌트사역에 올인해야 하겠다. 램넌트 한 사람이면 된다. 후대도 램넌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램넌트다.

오늘은 요엘서에 담겨진 후대 램넌트들의 승리의 비결 5단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① Covenant 언약과 복음이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을 쳐다본다. 주님은 문제가 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다.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구원을 받는다. 문제가 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죽어도 천국가면 된다. 의식주문제, 돈문제 생기면 기도하게 된다. 바울은 병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죽었다고 했다.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음이 중요하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된다.

② Vision 하나님이 주신 것,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을 237나라 5천 종족들이 어떠한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승리의 비밀과 키는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충만이다.

③ Dream 꿈이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25시의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이 오히려 24하기에 너무 좋은 이유가 된다.

④ Image 이미지이다.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란다. 절대불가능이 절대가능으로 변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⑤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말고 나에게 주신 절대미션을 붙잡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란다. 이때 모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대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천만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령충만을 허락해주시사 어두움을 가는 곳마다 밝히고 흑암을 쫓고 현장을 정복하는 참된 땅대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